

제목 중국 9월 제조업 PMI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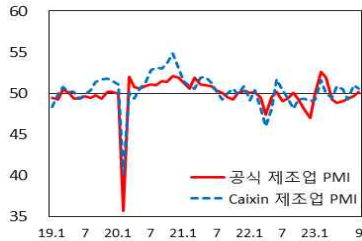
1. 9월 PMI의 주요 특징

□ (제조업 PMI) 9월 제조업 PMI는 50.2로 8월(49.7)보다 상승하면서 3월(51.9) 이후 6개월 만에 기준치(50)를 상회\*

\* (23.3월) 51.9 → (4월) 49.2 → (5월) 48.8 → (6월) 49.0 → (7월) 49.3 → (8월) 49.7 → (9월) 50.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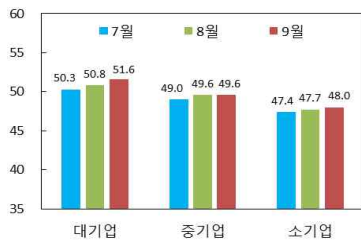
○ 규모별로는 중기업(8월 49.6 → 9월 49.6)이 전월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, 대기업(50.8 → 51.6)이 크게 개선되었고 소기업(47.7 → 48.0)도 부진이 다소 완화

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기업규모별 제조업 PMI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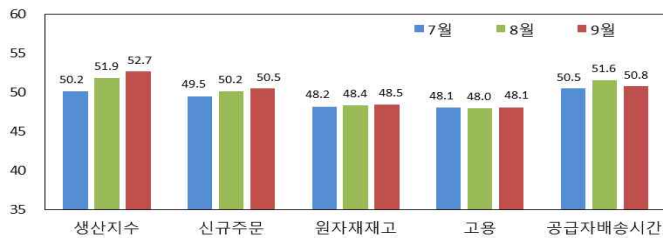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○ 주요 항목별로는 생산(51.9 → 52.7)과 신규주문(50.2 → 50.5)이 전월보다 개선된 모습을 보였고 공급자배송시간(51.6 → 50.8)도 2월(52.0) 이후 양호한 흐름을 이어간 반면,

원자재재고(48.4 → 48.5)과 고용(48.0 → 48.1)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

구성항목별 제조업 PMI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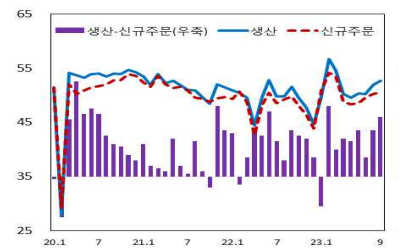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작성자 : 북경사무소 신동주 과장

— 공급으로 해석가능한 생산지수와 수요로 해석가능한 신규주문지수 간 차이는 더욱 확대(7월 0.7 → 8월 1.7 → 9월 2.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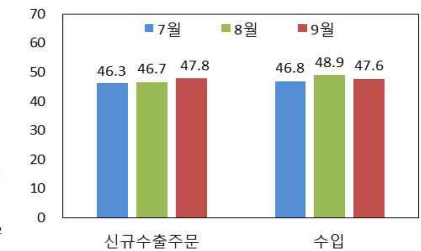
— 신규수출주문(46.7 → 47.8)은 전월보다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를 하회하였으며, 수입(48.9 → 47.6)은 종전의 부진한 흐름을 지속

생산 및 신규주문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수출입 관련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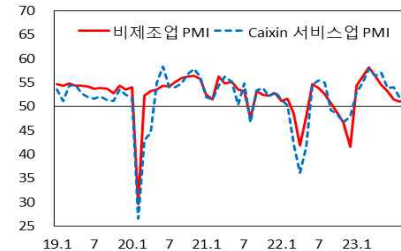
□ (비제조업 PMI) 9월 비제조업 PMI는 51.7로 8월(51.0)보다 상승하며 1월(54.4) 이후 9개월 연속 기준치(50)를 상회

○ 서비스업(8월 50.5 → 9월 50.9)은 여름휴가 종료 이후 철도·항공운송, 숙박·음식업\* 등이 다소 주춤했으나 우편, 통신, 인터넷, 금융 등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,

건설업(53.8 → 56.2)은 여름철 고온·폭우 영향이 진정된 가운데 인프라 건설을 위한 지방정부 전용채권 발행 가속화 등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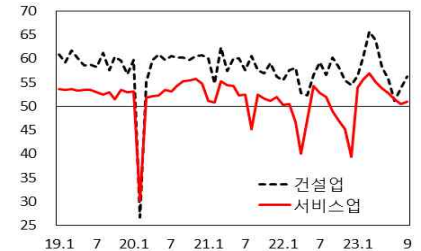
\* 현지 여행업체 등에 따르면 올해 국경절 연휴 기간중 중국내 여행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, 10월 철도·운송·숙박·음식업 관련 PMI는 반등할 것으로 기대(申信証券 등)

비제조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건설업 및 서비스업 PMI



자료: 국가통계국, WIND

□ (종합 PMI) 9월 종합 PMI(52.0)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동반 상승에 힘입어 8월(51.3)보다 상승

## 2. 시장평가 및 전망

□ 중국경제는 3/4분기 들어 **생산·소비** 등 **경제활동이 개선**되는 가운데 9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PMI 모두 전월을 상회하는 등 **경기반등에 대한 기대가 증대**

○ 2/4분기 이후 안정성장을 위한 정책지원 등에 힘입어 시장의 기대심리가 호전되면서 **공급 및 수요 모두 개선**된 것으로 평가(中金公司, 中金公司 등)

— 특히 공급이 수요보다 빠르게 반등\*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현재 재고 조정이 진행중이고 향후 수요 개선이 일정 부분 예상되는 만큼, 앞으로 과도한 재고 누증보다는 「생산 확대 ↔ 수요 개선」의 순환을 예상

\* 제조업 생산지수 - 제조업 신규주문지수: (23.7월) 0.7 → (8월) 1.7 → (9월) 2.2

— 이러한 주요 실물경제 지표의 개선 흐름 등을 반영하여 최근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금년 중국경제 성장률 전망을 소폭 상향 조정\*

\* JPMorgan(9.15일): 4.8% → **5.0%**, Citi(10.4일) 4.7% → **5.0%**

Morgan Stanley(10.1일): 종전의 4.7%를 유지하되, **0.1~0.2%p 상향 리스크**가 있다고 언급

○ 다만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\*이 여전히 높은 데다 투자 및 고용의 회복 속도가 늦어 **경기회복 기반이 아직은 견고하지 못하는 평가**도 상존(方正证券 등)

\* ① 미 연준과 ECB의 정책금리 추가 인상 여부, ② 반도체 및 AI 관련 미국·중국 간 갈등, ③ 전기차 보조금 관련 EU·중국 간 갈등 등

— 최근 생산·소비의 개선흐름이 보다 뚜렷해진 반면, 투자는 민간부문\*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**부문별로 회복세가 차별화**(中金公司)

\* 민간투자 증가율(누계, 전년동월대비, %): (23.5월) -0.1 → (6월) -0.2 → (7월) -0.5 → (8월) -0.7

— 또한 향후 **부동산경기**와 **중·소기업** **업황**의 회복세가 더더 소득 및 고용 증대가 뒷받침되지 못할 경우, 이는 **가계의 소비여력**을 **제약**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(财信国际研究院)

□ 중국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기회복세 강화를 위해 **소비**와 **투자** 등 **내수확대**와 함께 **부동산 시장 활성화**, **고용**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전망

○ 국무원(9.29일)은 **내국인·외국인의 관광 유도**를 위한 종합 정책\*을 발표하였고, 다수의 지방정부들은 **중추절·국경절** 연휴 기간중(9.29일~10.6일) **소비확대**를 위한 정책지원\*\*을 강화

\* 「여행소비 잠재력 발산과 여행업계 고품질 발전에 관한 조치」에서 관광 상품과 관련 시설 확충을 지시하고, 외국인 관광을 늘리기 위해 비자·통관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

\*\* 청두(成都), 난징(南京), 선양(沈阳), 더저우(德州) 등 다수 지역에서 소비쿠폰,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

○ 또한 광저우\*(9.20일)는 1선 도시로는 처음으로 **주택 구매 조건을 완화**하고, 일부 지역의 주택 매매에 대한 부가세 면제 기한을 5년에서 2년으로 조정

\* 「광저우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조정에 관한 통지」를 발표

○ 아울러 인적자원부 및 재무부(9.4일)는 공동\*으로 **고용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**하고, 민간·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조금 지급 등 **고용 장려를 위한 세부 대책**을 협의하기로 결정

\* 「고용정책 시행 강화에 관한 고시」를 발표